논문접수일 : 2013.07.04 심사일 : 2013.07.12 게재확정일 : 2013.07.23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도미노 니트 조직의 니트웨어 디자인

Knitwear Design of Domino-knitting Stitch Using Mondrian's Neo Plastic Characteristics

주저자 : 장애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Jang ae-ran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 황경혜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Hwang gyung-hye
Jeju National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2.1. 몬드리안의 예술적 근원
2.2.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
2.3. 도미노 니트 조직(Domino-knitting stitch)의 개념

3.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3.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3.2. 작품해설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도미노 니트 조직이 니트웨어의 표현영역 확대 및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을 차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에 도미노 니트 조직의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몬드리안 회화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신조형적 특성인 수직·수평선과 삼원색, 삼무채색에 의한 색상 대비 및 면의 분할로 재구성한 니트웨어 디자인에 도미노 니트 조직 기법으로 제작한 3 작품을 제시한다. 작품 I은 몬드리안의 'Red Tree'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응용하여 도미노 니트 조직의 평면 뜨기로 제작한 네트 가방이고, 작품 II는 몬드리안의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에서 도출한 모티브와 재해석한 몬드리안 룩을 응용하여 가터뜨기와 도미노 뜨기를 혼합하여 제작한 H-Line 원피스이다. 작품 III은 몬드리안의 'Composition with Red and Black'과 'Lorenge composition with Red, Black, Blue and Yellow'에서 도출한 모티브와 재해석한 프라다의 몬드리안 룩을 응용하여 가터뜨기와 도미노 뜨기를 혼합하여 제작한 H-Line 원피스이다. 결론적으로, 도미노 니트 조직의 표현기법을 니트웨어 디자인에도 접목시킬 수 있음을 재 규명하기 위함이다.

주제어

몬드리안, 신조형적 특성, 도미노 니트 조직, 가터 조직, 니트웨어 디자인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establish by reviewing the technique of domino-knitting stitch for knitwear design based on Mondrian's Neo Plastic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stablish the possible development of creative design and expand domain of expression of knitwear through domino-knitting stitch. To achieve this, 1st, to consider the Neo Plastic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horizontal line & vertical line and the three primary color & three achromatic color, and the concept of Domino-knitting stitch. 2nd, to present knitwear design works recreating motive derived from Mondrian's paintings based on color contrast and division of face. Work I is the net bag knitted by domino-knitting stitch using motive derived Mondrian's 'Red Tree'. Work II is the H-line one-piece knitted by a mix of garter stitch and domino-knitting stitch using motive derived Mondrian's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and reinterpreting Mondrian look. Work III is the H-line one-piece knitted by a mix of garter stitch and domino-knitting stitch using motive derived Mondrian's 'Composition with Red and Black' and 'Lorenge composition with Red, Black, Blue and Yellow' and reinterpreting PRADA's Mondrian look. Consequently, it is to reinterpret to add technique of domino-knitting stitch to various knitwear design.

Keyword

Mondrian, Neo Plastic characteristics, Domino-knitting stitch, Garter stitch, knitwear design

1. 서론

최근 니트웨어는 실용성과 패션성, 그리고 독특한 질감표현, 다양한 패턴 및 색상조직에 의한 디자인 등의 조형적 독창성(장애란, 2008)으로 인해 니트 제품의 소비가 증가추세이지만, 현실적으로 니트웨어는 우븐웨어에 비해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니트 조직의 개발과 테크닉의 다양한 활용 방법 제시, 니트웨어 디자인에 예술적인 디자인 개념의 차용, 그리고 조형예술이나 회화와의 접목(서민지, 김정혜, 2011)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응용하여 창의적인 니트 문양으로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소품과 액세서리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도미노 니트 조직이 니트웨어의 표현영역을 확대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을 차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에 도미노 니트 조직의 기법을 도입하여 제작한 작품을 제시함으로서 도미노 니트 조직이 니트웨어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실용성과 예술성은 물론 니트웨어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표현기법임을 재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도미노 니트 조직의 특징인 선과 정사각형 모티브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몬드리안의 구성적 이미지라고 사려되어 몬드리안의 회화적 요소인 수평선과 수직선, 삼원색(빨강, 노랑, 파랑)과 삼무채색 (흰색, 회색, 검정)의 신조형적 양식을 차용한다. 대표적인 몬드리안의 구성적 이미지는 이브 생 로랑의 1965년 파리 컬렉션에서 몬드리안 회화를 도입하여 디자인한 몬드리안 룩(Mondrian Look)에서 볼 수 있다. 몬드리안 룩은 삼원색과 삼무채색 중 검정과 흰색만을 사용하여 색, 면분할에 의한 기하학적 구성의 직선 실루엣 원피스(허정선, 2003)에 붙여진 명칭이며, 여러 디자이너들도 몬드리안의 회화를 자신의 디자인 테마에 응용하였고, 그 밖의 많은 제품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더욱이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이 몬드리안의 화풍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검정과 흰색, 비비드 컬러를 이용한 기하학 무늬로 니트를 디자인하였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 몬드리안 회화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을 도미노 니트 조직 기법으로 제작해 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몬드리안 회화의 신조형적 특성과 도미노 니트 조직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미노 니트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몬드리안 회화에서 모티브를 도출한다. 이차적으로는 도출한 모티브를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인 색상 대비 및 면의 분할로 재구성한 니트웨어 디자인에 도미노 니트 조직의 표현기법을 도입하여 실제 3 작품을 제작하여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몬드리안의 예술적 근원

네덜란드의 화가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은 입체주의에서 시작된 추상화의 작업을 진행시켜 보편적인 실재의 개념을 형상화함으로써 추상미술을 완성한 화가(마순자, 1993)이지만, 입체주의를 접하기 이전까지는 네덜란드의 풍경에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강조하는 영감을 받았기에 자연주의 화가라고도 한다. 몬드리안이 수직·수평선에 의한 평면적 구조와 풍경의 주된 특성인 빠른 후진감 사이에서의 긴장감을 추구한 것은(윤난지, 1993) 네덜란드의 청교도적 사고인 완벽한 강직성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물의 표면 내부에 숨어 있는 자연의 위대한 법칙을 최소한의 질서, 선과 색의 적절한 비례로 구성된 엄격한 형태로 추상예술을 승화시켰다. 따라서 몬드리안은 자신의 예술조형이 형태와 색채를 시각적 표현으로 드러낸, 가장 순도 높은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직선, 직각, 수직과 수평선을 이용하고 무채색이나 삼원색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창작하였다(정금희, 2005).

몬드리안 회화가 완성되기까지의 예술적 근원은 이원성의 신지학(神智學, Theosophy)과 조형수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몬드리안은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관심사였던 신지학의 심오한 교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범신론적 사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신지학이란 그리스어 'theo'(神)와 'sophia'(지혜)의 합성어로서, 신성한 지혜를 의미하며(전혜숙, 1984), 그 어원은 고대 인도의 신비주의와 신플라톤주의에서 유래된 것이다. 신지학은 종교와 철학을 융합한 세계관으로, 신학이나 종교철학과는 다른 신비주의적인 사상이 지배적이다. 즉, 삼라만상에서 비쳐진 불가사의한 일들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해명하기 위해 신의 지혜에 의지하려는 것으로, 단순한 지적 관찰이나 분석이라기보다는 고차원적 감각인 직관이 중요 사항이다. 신지학과 관련된 몬드리안의 예술세계는 '신비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신비적 영역'에 도달하려는 것으로, 그가 그린 두 권의 스케치북(1권:바다를 주제로, 2권:건물을 주제로)에서 수직, 수평적인 요소를 남성과 여성의 이원적 요소로 대립시켜 설명한 것에

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성에 해당된 요소는 정적, 보존적이며 방해적인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수평선으로 표현하여 물질적 기쁨을 상징하였다. 반면 남성적인 요소로는 동적, 창조적, 표현적이며 진보적인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수직선으로 표현하여 정신적인 기쁨을 상징하였다. 따라서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수평, 수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결국 두 선의 대립은 직각과 평면적 사각형을 만들어 냈다.

몬드리안은 1915년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라덴에 머무르면서 수학자이며 신지학자인 쇤마커 박사(Dr. M. H. J. Schoenmacker)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쇤마커는 자신의 저서 『세계의 새로운 이미지』에서 신비주의를 설명함으로써 스틸 화가들이나 몬드리안에게 보편적인 힘을 깨닫는 방법과 그 힘을 회화적인 조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쇤마커는 '실증적 신비주의'에서 세계와 리얼리티의 본질에 대한 논리체계를 세웠는데, 그 결과, 조형수학이론을 도출하였다. 조형수학이란 창조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진실하고도 방법론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몬드리안이 조형수학을 통해 수용한 것은 정확성의 개념으로, 조형수학 안에서 자연의 상징적인 진리가 정확성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연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변화가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절대적인 불변성(조형적인 불변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몬드리안은 쇤마커의 사상에 따라 수평선과 수직선의 관계에 의한 절대적 리얼리티를 표현하게 되었다. 몬드리안은 쇤마커의 신지학의 영향으로 삼원색을 사용함에 따라 직각이 지닌 보편적 우월성의 개념을 다시 강조하였고, 삼원색의 신비한 본질을 한층 더 심도 있게 설명하는 등 결국 쇤마커의 이론을 신조형주의 정립에 활용하였다(정금희, 2005).

그 결과, 몬드리안은 1917년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테오 판 두스브르흐(Theo van Doesburg)와 함께 '데 스틸(De Still)' 그룹을 결성하여, 잡지 『데 스틸 』에 '신조형주의(Neo Plasticism)' 즉, '진정한 추상주의 회화'에 대한 주요 이론을 게재하였다(Blake, 2001). 이를 통해 몬드리안은 엄격하고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인 회화를 추구하는 자신의 시각에서 우주적 진실을 표현하길 원했고, 그 형식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하고 선을 수평과 수직의 축으로 환원하며 색채를 삼원색과 삼무채색으로 환원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그에게 수직선은 생기를, 수평선은 평온함을 의미하므로, 이 두선을 적절한 각도에서 서로 교차시켜 역동적인 평온함에 도달함으로써(네이버 지식백과, n.d.) 자연의 재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편적인 리얼리티를 구현한 자신의 회화 방식인 신조형주의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 방식을 통해 '순수한 리얼리티'인 '모든 형태의 배제'로 '상반된 것들 간의 등가에서 비롯되는 조화'를 탐구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김영빈, 2008).

2.2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

몬드리안은 신지학과 관련된 신비적인 면과 신조형적 특성인 수직, 수평적인 요소를 남성과 여성의 이원적인 요소로 대립시킴으로써 여성적 요소(물질적)와 남성적 요소(정신적)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합일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끌어당긴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 중에서 도미노 니트 조직의 표현기법에 필요한 수직과 수평선, 삼원색 및 삼무채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선적인 구조(수직 · 수평선)

몬드리안은 1917년 이후 전면을 선과 색채로 균형있게 통합한다는 구성 원리를 디자인에서 선과 면으로 표현하였다. 수직과 수평선 자체의 순수 도달을 기하학적 추상의 이론으로 정립함으로써 면을 둘러싸고 있는 선에 역점을 두었다(마순자, 1993). 다시 말해서 몬드리안의 수직·수평선은 남성과 여성, 정신과 물질 등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이원론적 요소들의 만남을 의미하지만, "자연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수평적 조형요소"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정병관 외 13인, 1987). 이는 신지학의 이원론적 사유작용에 입각하여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보편적 조형요소의 이론을 바탕으로 확립된 것이므로, 수직·수평선은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회화의 절대적 회화 요소이다. 더욱이 초기의 자연주의적 작품에서부터 완전한 기하학적 추상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세계를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수직·수평선은 자연 형태를 계속해서 단순화시키고 감축시키기 위한 조형 요소(박경진, 2002)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조형주의 원칙에 의한 조형 형태는 수직·수평선의 상호교차에 의해 직선의 비례와 균형의 상호 등가성을 기본으로, 직선의 교차에서 초래된 수많은 크고 작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통일되고 균형 있게 배열·조합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직·수평선의 이원적 균형의 조화란 두 수직, 수평선이 만든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조형 형태가 상호간의 등가성으로 기하학적 질서와 직선의 비례에 의해 초래된 균형으로, 공간과 형태와의 상호 관계를 완벽한

공간결정(박경진, 2002)으로 도출해낸 것이다.

② 조형적 색채인 삼원색과 삼무채색

몬드리안 회화에서의 색채는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921년 '구성'이라는 연작을 발표하면서 직각으로 교차되는 선과 흰색, 검정색, 회색의 무채색에 대립되는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을 일정한 농도와 명도로 채색하여 가시화하였다. 이 연작은 절정기의 예술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큰 면적의 빨강과 파랑의 색 면이 전해주는 힘과 색채의 상승 확장하는 움직임이 삶의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몬드리안은 색채의 움직임을 실험하면서 중심이 비어있는 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힘의 발산을 암시하는 흰색 면으로, 1921년 이후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되었다. 1930~31년에는 흰색 배경에 검은 선을 수직과 수평으로 그려 넣은 매우 급진적인 추상의 형태를 보여주었고, 1932년 이후에는 반복과 연작, 모사의 원리로 돌아갔지만 그 전과는 달리 검은 선 자체를 모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중선'이라는 특징적인 형태를 이끌어내는 등 현대적이고 기계적으로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적인 비례와 조화를 절묘하게 어우러지게 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n.d.).

몬드리안 회화의 대표적인 색채인 삼원색도 신지학에 근거를 둔 것이다. 쇤마커가 말하는 색채론에서 세 가지 기본 색채란 노랑, 파랑, 빨강으로, 유일하게 실존하는 색채이다. 색채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노랑은 빛의 움직임을 말하며, 파랑은 노랑과 대비되는 색채로 창공이고 선이며 수평선을 의미한다. 빨강은 노랑 및 파랑과 짝을 이루는데, 노랑은 빛을 발하고(光彩), 파랑은 뒤로 후퇴(後退)하며, 빨강은 위로 떠오른다고(浮上) 기술했듯이 몬드리안 회화의 삼원색은 신지학뿐만 아니라 조형 수학적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직각으로 교차되는 선과 흰색, 검정색, 회색의 무채색에 대립되는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을 농도와 명도가 일정하도록 채색함으로서 이를 가시화한 것을 보면, 몬드리안이 면과 색채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대비시키기 위해 삼원색과 무채색만을 사용하여 평형을 통한 균형감을 이루도록 한 것임을(안종숙, 2012)을 알 수 있다.

2.3. 도미노 니트 조직(Domino-knitting stitch)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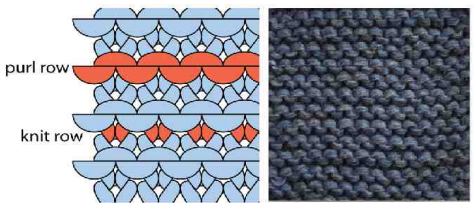
도미노 니트 조직은 가터 조직의 변형으로, 가터 조직을 먼저 살펴 본 후, 도미노 니트 조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3.1. 가터 조직(Garter St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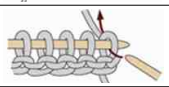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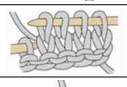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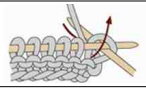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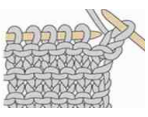
가터조직은 손뜨개 니트인 대바늘뜨기의 기본(메리야스뜨기, 고무뜨기, 가터뜨기) 중 가터뜨기를 위한 조직으로, 일명 펄 조직(Purl Stitch) 혹은 양두편이라고도 하며, 겉뜨기단과 안뜨기 단이 반복되는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터뜨기 조직이라고 한다. 펄 조직에는 1 x 1 펄 편이 기본 조직이고, 이외에도 2 x 1 펄 편, 2 x 2 펄 편과 코스 방향(편성물의 가로방향)으로 교차되는 열수에 따라 바스켓 펄 편(basket purl stitch), 크로스 펄 편(cross purl stitch), 모스 편(moss stitch) 등이 있다(박아진, 2005).

[그림 1]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터뜨기에서의 평뜨기는 1단마다 겉뜨기만으로 구성된 것이고, 둥근 뜨기는 1단마다 겉뜨기(Knit row)와 안뜨기(Purl row)를 같이 하여 겉 코는 들어가고 안 코가 나오게 됨으로써 가로로 요철이 생기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가터조직은 1단은 겉뜨기(l), 2단은 안뜨기(ㅡ)모양으로 완성된 편성물로(네이버지시백과, n.d.), 특징으로는 편직의 앞뒤면의 구분이 없어 외관상 똑같지만 앞면의 코와 뒷면의 코가 겹쳐서 앞뒤 양면에 뒷면 코의 코스(back loop course)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므로 상하로는 늘어나지만 좌우로는 신축성이 없어서 평면조직보다 두껍다.



[그림 1]가터조직과 편성물
(출처: http://blog.naver.com/ccllim? Re...)

①	코잡기
② 	오른손의 바늘을 화살표 방향으로 찌른다
③ 	계속해서 겉뜨기를 한다
④ 	편성물을 왼손으로 바꿔들고 똑같이 겉뜨기를 한다
⑤ 	가터뜨기 완성모양

[표 1] 가터뜨기 과정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n.d.)

[그림 2]도미노 니트의 다양한 바탕조직
(출처:http://mandycho08.blog.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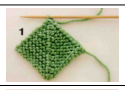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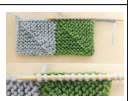
①		뜨면서 만드는 방법으로 코를 만들고, 1단은 겉뜨기하고, 2단도 겉뜨기를 하다가 '(콧수-3)÷2'의 부분까지 뜨고 걸러 뜨기를 한다.
②		다음은 2코를 한꺼번에 뜨고(왼코를 겹쳐 2코 모아뜨기), 먼저 2코의 왼쪽에서 바늘을 넣는다.
③		겉뜨기를 하고, 왼쪽 겹쳐 2코 모아뜨기가 완성된다.
④		흰 색은 뜬 코, 회색은 걸러 뜨기한 코로, 1코가 줄어든 상태이다
⑤		다음으로 왼쪽 바늘을 오른쪽 바늘의 걸러 뜨기한 회색코에 넣는다
⑥		걸러 뜨기한 회색코를 3에서 뜬 코에 덮어씌우면 2코가 줄어든 상태이다
⑦		3코 모아뜨기가 완성(2코 줄이기)된다
⑧		물결무늬 2줄이 완성된 후 시작 코 가장자리의 실이 오른쪽에 오는 단에서 3코 모아뜨기를 한다(①의 걸러뜨기부터 ⑥까지 반복)
⑨		2단마다 2코씩 줄면서 사각형에 가까워진다.
⑩		3코 모아뜨기를 반복하고, 1코가 남으면 완성된다
⑪		모티브를 연결한다. 바늘에 '(처음 만든 콧수-1)÷2'만큼의 코를 만들고, 모티브 가장자리에서 남은 콧수를 줍는다. 1단을 겉뜨기하고, ①~⑥의 방법으로 3코 모아뜨기를 하면서 1코가 남을 때까지 뜬다.

[표 2] 도미노 니트 조직의 모티브 뜨기 과정
(출처: 두산백과. n.d.)

2.3.2. 도미노 니트 조직(Domino-Knitting stitch)

도미노 니트 조직이란 가터 조직의 변형으로, 똑같은 조직의 카테고리 연결을 말한다.

도미노 니트 조직은 북유럽 니트 패턴 중의 하나로, 덴마크의 노르딕 니팅을 위한 핸드 니트 기법이다. 노르딕 니팅은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디자인,

①		모티브 2는 모티브 1을 완성한 후 마지막에 남은 1코와 모티브 1에서 10코를 1번 바늘에 1코씩 건다
②		1번 바늘에 이미 나란히 건 11코에 10코를 별도로 더 만들어 늘려준다.
③		2를 기본 모티브로 1과 같은 방법으로 뜬다. 가운데 중심 3코를 모아 줄이기로 2단에 1번씩 3코 모아 2코 줄이기로 2코씩 감하면서 마지막에 1코 남을 때까지 가터뜨기로 뜬다. 완성하면 ④와 같이 1모티브와 2모티브가 연결된다.
④		
⑤		3모티브를 ⑤번 이미지와 같은 방법으로 바늘에 10코를 감아 늘리기 코로 먼저 만들어 준 다음 1모티브 모서리에서 11코를 줍는다.
⑥		3모티브 연결 뜨기 완성으로 모티브 3개 연결된다.
⑦		3모티브에서 10코를 줍고 가운데 1모티브에서 1코 줍고 2모티브에서 10코를 주우면 합이 21코가 된다.
⑧		완성 모티브

[표 3] 도미노 니트 조직의 네 모티브 연결 과정
(출처: Vivian Høxbro,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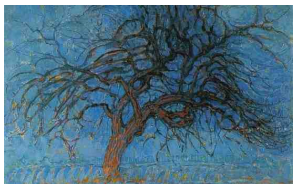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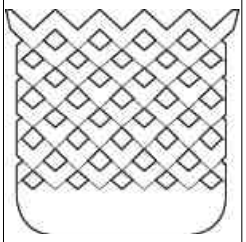
친환경적인 소재, 독창적인 컬러 배치 등의 스타일 총칭으로, 그 활용의 다양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도미노 뜨기는 덴마크의 유명한 니트 디자이너 비비안 획스브로(Vivian Høxbro)가 고안한 도미노 니트 조직의 손뜨개 기법이다. 도미노란 꼬리를 물고 쓰러지듯 즐거움도 널리 퍼진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이름이다(하야시 고토미, 2012). 도미노 뜨기는 북유럽에서 주로 컵받침, 실내화, 암 워머, 파우치 등 일반적인 생활소품과 액세서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의 독창성으로 보아, 조형적인 니트웨어 디자인과 무한한 디자인 개발에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사려된다. 그 외에도 소재 선택과 색상 혼합에 의한 다양성 추구는 물론 모티브에 가로줄 배색과 비침무늬(Lace stitch)를 첨부한다면 더욱 더 조형성이 강한 니트웨어 디자인에도 활용가능하다.

도미노 니트 조직의 도미노 뜨기는 1코가 될 때까지 뜨는 과정에서 사선으로 줄이 생기면서 정사각형 모티브가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도미노 뜨기의 포인트는 코를 홀수로 만든 후 1코가 될 때까지 뜨는 기법이므로, 코를 줄이는 위치가 정확해야지만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조직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며, 조형적인 부분이 더욱 잘 표현된다.

이 과정을 [표 2]와 [표 3]에서 알 수 있다.

[표 2]에서 만든 도미노 니트의 모티브를 같은 조직의 카테고리로 연결한 과정은 [표 3]과 같다.

				
Red Tree(1908) (출처:Arnason, 1986)	도출한 모티브	도미노 니트 조직 /도미노 뜨기	도식화	작품

[표 4] 작품 I

3.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3.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작품제작 의도는 도미노 니트 조직의 기하학적 단순성을 표현하기 위해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인 선을 수평과 수직의 축으로 환원하며 색채를 삼원색과 삼무채색으로 환원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수직선은 생기를, 수평선은 평온함을 의미하는 이 두선들이 적절한 각도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표출된 역동적인 평온함을 디자인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몬드리안이 주장하는 조형예술의 본질인 최소표현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작품의 표현 기법으로는 [표 1], [표 2], 그리고 [표 3]에서 제시한 도미노 니트 조직의 도미노 뜨기와 가터뜨기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소재로는 캐시미어와 울을 선택한다. 색채로는 몬드리안의 주조색인 삼원색과 삼무채색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기능성과 예술성을 추구함은 물론 핸드 니트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자 한다.

디자인의 실루엣으로 심플한 H-Line을 선택한 것은 도미노 니트 조직의 특성과 몬드리안 회화의 면과 삼원색과 삼무채색인 색채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비시켜 평형에 의한 균형감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여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위함이다.

3.2. 작품 해설

3.2.1. 작품 I

구성 : Net B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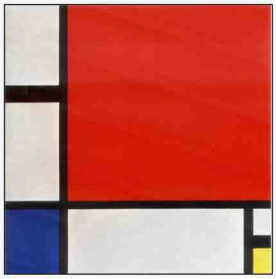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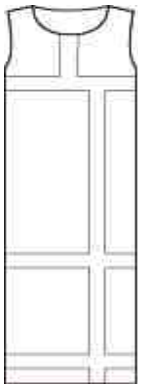
소재 : Cashmere, Wool

색상 : 빨강, 파랑, 검정

기법 : 도미노 뜨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몬드리안의 'Red Tree'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응용하여 도미노 니트 조직의 네트 조직을 평면 뜨기로 제작한 네트 가방이다. 'Red Tree'는 몬드리안의 1908년 작품으로, 나뭇가지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하며 나무와 나무를 둘러싼 배경의 색채는 실제 색채라기보다는 나무의 생명력을 표현하려는 듯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조적인 색상으로 묘사됨으로써 나무의 격렬한 움직임과 푸른 하늘과의 조화, 일종의 균형감각의 창조를 통해 몬드리안의 자연관이 표현되었다.

작품 I의 특징은 'Red Tree'에서 도출한 모티브인 나뭇가지 사이에 형성된 마름모꼴 구성과 색상대비를 응용, 재해석하여 큰 면적의 빨강색을 바탕으로 파랑과 검정을 가로줄 무늬로 넣고 마름모 형태의 조직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조형적인 디자인을 표현한 것이다. 기법으로는 가로 48 X 세로 44 사이즈를 도미노 니트 조직의 변형인 네트 조직을 위해 평면 뜨기를 이용하여 31코를 만들어 14단을 올라가 마무리한 후 또 다른 모티브의 조직을 카테고리 연결로 만들어 감으로써 조직의 연속성에 의한 안정감과 조형성을 표현하였다. 몬드리안의 작품에서는 파란 창공과 빨간 나무를 표현하였지만, 네트 가방에서는 빨간색을 바탕으로 파랑색과 검정색을 선으로 연결하여 심플함을 재구성함으로써 색 면이 전해주는 힘과 색상의 상승 확장하는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도미노 니트 조직은 조직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생활 소품에 주로 활용되어왔기 때문에 네트 가방을 제작함으로써 도미노 니트 조직의 조형적 표현 활용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재 규명할 수 있었다.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1930) (출처:Arnason, 1986)	도출한 모티브	도미노 니트 조직/ 도미노 뜨기, 가터 뜨기	도식화	작품

[표 5] 작품 II

3.2.2. 작품 II

구성 : 원피스
소재 : Cashmere, Wool
색상 : 흰색, 빨강, 파랑, 노랑, 검정
기법 : 가터뜨기, 도미노 뜨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몬드리안의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란 작품에서 도출한 모티브와 1965년에 이브 생 로랑이 발표한 몬드리안 룩을 새로운 니트 조직의 기법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가터뜨기와 도미노 뜨기를 혼합하여 제작한 H-Line 원피스이다.

몬드리안은 나무의 연작에 이어 단순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화면을 최종적으로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과 흰색과 검정, 그리고 수직과 수평의 선과 그것들이 교차하는 선만을 남기게 하였다. 이는 몬드리안이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만으로도 사물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그 믿음을 반영한 작품이 바로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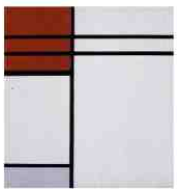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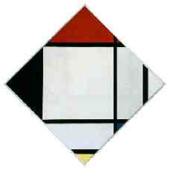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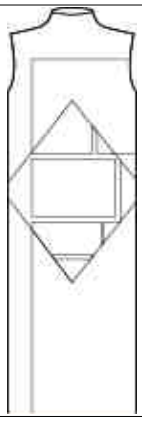
몬드리안 룩은 이브 생 로랑이 몬드리안 회화에서 삼원색과 삼무채색을 사용하여 색과 면 분할로 기하학적 직선 실루엣으로 구성된 원피스에 붙여진 룩으로,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을 패션에 응용하여 하나의 패턴으로 만든 것이며, 수평선, 수직선,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색채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작품 II의 특징은 도미노 뜨기로 몸판을 빨강과 흰색을 사용하여 정사각형 모티브를 만들어 연결한 것으로, 도미노 뜨기의 특징인 사선을 표면 질감으로 강조하였다. 네크라인에서부터 요크부분, 원피스 단 부분은 구성상 직사각형의 모티브이므로 가터뜨기를 하였다. 특히 빨강과 파랑, 노랑의 원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하였고, 무채색인 흰색을 중간 위치에 삽입한 것은 힘의 발산을 암시하는 색채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 이유는 몬드리안이 주장한 것처럼 흰색이 그 어떤 색채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래의 완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새로운 니트 조직의 기법에 의해 재해석한 몬드리안 룩에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이론을 가장 많이 표현한 것으로, 수직선의 생기, 의지와 수평선의 휴식, 평온함, 색채도 흰색을 기본으로 빨강, 파랑, 노랑을 사용함으로써 몬드리안 룩에 표현된 면 분할과 조형성을 나타냈다. 기법으로 도미노 뜨기와 가터뜨기를 혼합하여 제작한 것은 원피스의 면 분할을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도미노 뜨기에 의해 형성된 정사각형의 사선을 통해 운동감은 물론 조형적인 질감, 그리고 색채를 서로 조화시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이다.

3.3. 작품 III

구성 : 원피스
소재 : Cashmere, Wool
색상 : 빨강, 검정
기법 : 가터뜨기(3코 사선무늬), 도미노 뜨기
작품해설: 이 작품은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몬

 				
Composition with Red and Black(1936) Lorenge Composition with red. black, and yellow(1925) (출처:mondriantrust.com, n.d.)	도출한 모티브	도미노 니트 조직/ 도미노 뜨기와 가터뜨기의 중첩	도식화	작품

[표 6] 작품 III

드리안의 'Composition wth Red and Black'과 ' Lorenge composition with Red, Black, Blue and Yellow'의 작품에서 도출한 모티브와 2011F/W에 발표한 프라다(PRADA)의 몬드리안 룩을 새로운 니트 조직의 기법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가터뜨기와 도미노 뜨기를 혼합하여 제작한 H-Line 원피스이다. 디자인은 몬드리안 룩의 색상과 실루엣을 차용하여 몸판 대부분은 가터뜨기로 구성하였고, 특히 조직의 비대칭을 더욱 강조하기위해 옆선과 요크라인, 그리고 하이웨이스트라인에 검정색 패턴을 삽입하였다. 그 이유는 몬드리안이 블랙 예찬론자로서 '블랙에는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색상이 존재한다' 라고 주장했듯이 본 작품에서도 검정을 사용함으로서 몬드리안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 III의 특징은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검은 선 자체의 이중선이라는 특징적 형태를 차용하여 검정색으로 가터뜨기 3코 사선무늬를 삽입함으로서 자유와 역동성이 공존하는 비대칭의 리듬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네크라인의 경우는 탈착의가용이하도록 가터뜨기로 조직을 느슨하고 여유 있게 제작하였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Lorenge composition with Red, Black, Blue and Yellow'의 작품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도미노 뜨기로 제작한 마름모꼴 모티브를 앞 중심에 덧대줌으로서 면의 분할에 의한 조직의 긴장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또 가터뜨기와 도미노 뜨기의 중첩효과로 인해 신조형주의적 보편성인 동적인 비대칭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도미노 니트 조직이 니트웨어의 표현영역 확대 및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을 차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에 도미노 니트 조직의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몬드리안 회화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신조형적 특성인 수직·수평선과 삼원색, 삼무채색에 의한 색상 대비 및 면의 분할로 재구성한 니트웨어 디자인에 도미노 니트 조직 기법으로 제작한 3 작품을 제시하여 규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미노 니트 조직이 니트웨어 디자인에도 활용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몬드리안의 신조형적 특성을 차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원성의 신지학과 쇤마커의 조형수학에서 영향을 받은 신조형적 특성이 수평선과 수직선, 삼원색과 삼무채색으로 구성되었기에 도미노 니트 조직의 표현기법에 가장 적합하다고 사려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도미노 니트 조직은 덴마크 니트 디자이너인 비비안 획스브로가 고안한 가터조직의 변형으로, 똑같은 조직의 카테고리 연결을 말한다. 도미노 니트 조직의 기법인 도미노 뜨기는 코를 홀수로 만든 후 1코가 될 때까지 뜨는 과정에서 대각선에 선명한 사선이 형성되면서 정사각형의 모티브가 만들어지며, 고려해야 할 점은 코를 줄이는 위치가 정확해야지만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조직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며, 조형적인 부분이 더욱 잘 표현된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니트 조직으로 도미노 니트 조직의

표현기법을 니트웨어 디자인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단순성을 차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에 캐시미어와 울 소재로 도미노 뜨기와 가터뜨기를 혼합하여 제작한 3작품을 제시한 결과, 도미노 니트 조직의 표현기법도 니트웨어 디자인에 접목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핸드 니트의 고급스러운 표현 가능성은 물론 기능성과 예술성을 추구할 수 있음을 재 규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시작으로 더욱더 새로운 조직의 표현기법을 개발하여 니트웨어에 활용한다면 다양한 니트웨어 디자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참고문헌

- 김영빈 (2008).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조형이. (2013.6.18.). http://binart.com/article/900
- 마순자 (1993). 『몬드리안(Piet Mondrian)회화에서의 리얼리티』. 미술사학.
- 박경진 (2002). 「몬드리안의 조형원리를 응용한 Table Design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진 (2005).「도형의 조형미를 응용한 니트 디자인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지, 김정혜 (2011). 클리포드 스틸의 회화를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패션과 니트』, 9(2), 47-59.
- 안종숙 (2012). 몬드리안 작품을 모티브로 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6(1), 21-31.
- 장애란 (2008). 로하스를 위한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 『복식』, 58(3), 79-92.
- 정병관, 이화익, 송미숙, 김혜주, 전혜숙, 오진경, 김미경, 김금미, 윤난지, 송기매, 마순자, 오병남, 임영방, 이경성 (1987). 『현대미술의 동향』. 서울 : 미진사.
- 전혜숙 (1984). 「몬드리안 그림에 있어서의 수직 s 수평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금희 (2005). 몬드리안의 조형예술연구. 『예술논집』, 6(0), 97-124.
- 하야시 고토미(2012). *Nordic Knitting Ten fabulous techniques*. 배혜영 (2012).『북유럽 스타일 손뜨개』. 서울 : 진선 아트북.
- 허정선 (2003). 조형 기호학적 접근에 의한 의상 이미지 분석 - 이세이 미야케의 〈에리조나>의 이브 생 로랑의 〈몬드리안 룩〉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3(1), 105-123.
- Arnason, H.H. (1986). *A History of Modern Art 3rd ed.* London: Thames & Hudson. 200-203, 341, 344.
- Blake, R. (2001). *Essential Modern Art*. London : Paragon. 66-69.
- Lynton N. (1979). *The Story of Modern Art*. 윤난지 역 (1983). 『20세기의 미술』. 서울 : 도서출판 예경.
- Vivian Høxbro (2008). *Advanced Domino-Knitting*. Tokyo: 문화출판국. 30-31.
-네이버지식백과(n.d.). 피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2013.6.16.), http://terms.naver.com/print.nhn?cid=200000000&docId=1094176&categoryId=2000...
- 네이버지식백과(n.d.). 가터뜨기. (2013.6.18), http://terms.naver.com/print.nhn?cid=200000000&docId=1055460&categoryId=2000...
- 가터뜨기. (2013.6.17.). http://blog.naver.com/ccllim?
- Piet Mondrian. (2013.6.8.). http://mondriantrust.com
- 도미노 니트의 바탕조직. (2013.6.18), http://mandycho08.blog.me/30039208964